



동방경제포럼 소식

-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 개최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. 이번 포럼에는 6천명 이상의 정부 대표단과 60개국에서 온 천3백명의 미디어언론인들이 참가했다. 이번 포럼에서는 3조1천억 루블에 달하는 220개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. (인테르팍스)
- 러시아, 중국, 한국 출신 14명의 정치인들과 재계 대표들이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된 청년 행사에서 강연했다. 주요 강연 주제는 2030년을 향한 미래 비전, 첨단기술의 발전 등 이었다. 이외에도 국제관계, 리더십, 경영, 생산과 운영을 주제로 한 강연도 열렸다. (이즈베스티야)
- 북미대학 학생대표단들이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했다. 러 과학원 세르게예프 이사장이 북미에서 온 학생들을 환대했으며, 러시아와 극동 발전을 위한 과학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. 학생들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교육제도 발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. (FederalPress 통신)
- 러시아 비오키드 회사가 중국에 제약 공장을 세울 계획이며, 관련 합의서가 금번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되었다. 서명 행사에는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이 임석했다. (코메르산트 신문)
- 타라센코 연해주 지사 권한대행과 류 위펄 SINOMEC 중국 에너지회사 부사장은 연해주 내 석유가공공장 설립 합의를 체결했다. 투자액은 500억 루블에 달한다. 이 사업을 통해서 1천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 (리아 노보스티)



- 로스테흐 국영회사는 Vostok 블록체인 프로젝트 업체와 러시아 '디지털 경제' 프로그램 사업 추진용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. 두 회사는 국가기관, 시민, 지방기관 간의 데이터 교환, 취합, 저장을 위해 Vostok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. (RBK)
- 미니하노프 타타르스탄 공화국 대통령과 체 준 저장성 중국 공산당 위원회 서기는 경제, 과학, 사회,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 이번 포럼에서 미니하노프 타타르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서천성과 산둥성 지도부와의 회담을 가졌다. (타스 통신)
- 극동자연보호구역과 국립공원을 안내하는 최초의 가이드북이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소개되었다. 가이드북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출판되었다. 크로노츠키 국립자연보호구역과 비영리기구인 '러시아 자연보호시대' 엑스포센터가 책 출판을 협찬했다. (타스통신)

동방경제포럼 소식

- 2018년 극동은 최고의 어획 풍년을 맞았다. 올해 61만2천 톤의 연어가 이미 잡혔는데, 그 동안 최고 어획 기록은 2009년의 52만 톤이었다. 올해는 유망 어종인 고등어와 정어리 어획량도 증가하고 있다. (리아 노보스티)
- 레기온 회사가 아무르 강을 가로질러 블라고베센스크와 중국의 흑하시를 연결하는 접경지대 케이블카 건설 사업의 신규 투자업체로 선정되었다. 이에 대해 오를로프 아무르주 지사 권한대행이 밝혔다. (타스 통신)

동방경제포럼 조직사 - 'RosCongress'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.

'RosCongress' 재단은 컨벤션,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.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, 정보,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